

# 천만그루 정원도시 품격 'UP'

### 전주시, 지자체 최초 녹지조성 총괄 도시 총괄조경가 위촉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에 나선 전주시가 조경분야 전문가를 위촉했다.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전주를 회복력 있는 도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로 만드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첫 결재사업이다.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 조경설계 전문가를 총괄조경가로 위촉, 조경 실무와 설계 조정, 도시조경 기획·자문을 바탕으로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만들고 조경디자인의 수준을 높일 목적으로 도입했다.

최신현 총괄조경가는 미국 조경가 협회상을 수상한 서서울호수공원의 총괄 설계를 담당하고 서울시와 함께 72시간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실무경험과 기획·설계·조정능력이 뛰어난 국내 최고의 조경설계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최 총괄조경가는 지난 18일 덕진공원을 둘러보고, 관련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향후 전통공원 조성에 대해 심

도 있는 논의를 하는 등 첫 일정을 소화했다.

시는 향후 녹지정책과 관련해 총괄조경가 주재 하에 관련부서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는 총괄조경가를 위촉함으로써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조경전문가로부터 종합적인 검토 및 자문을 받아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총괄조경가는 "도시의 조경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빛, 물, 소리, 바람 등 자연 속에서 생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조경, 세월이 흐를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조경으로 전주시의 정체성과 가치를 살려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승수 시장은 "천만그루 정원도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8일 시청에서 국내 최고수준의 조경설계 전문가로 손꼽히는 최신현(쑤시토포스 대표)을 총괄조경가로 위촉했다.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세계적인 조경전문가인 전주시 총괄조경가와 함께 전주를 천만그루 나무와 꽃, 물과 빛,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명존중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 송하진 도지사 1심서 무죄 선고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18일 송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전북도민들이 송 지사의 메시지를 격려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 지사는 지난해 2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3년 새만금 세계캠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송 지사에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위를 상실한다. /강석훈 기자

## 성당서 차량 탈던 30대 신도에게 붙잡혀

인적이 드문 성당 주차장에서 차량을 탈던 30대가 신도들에게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절도 미수 혐의로 A모씨(35)를 검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모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경 익산시 합영읍의 한 성당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성당 신도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당관계자는 "같은 날 한 신도가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던 중 A모씨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는 모습을 보고 뛰쳐나가 붙잡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모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

## 신용카드 훔친 20대 검거

신용카드를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절도 혐의로 A모씨(24)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모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7시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한 편의점에서 ATM기 위에 피해자 B모씨(32)가 현금거래 후 놓고 간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지난 17일 오후 2시경 A모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 기부자 명단

〈원주〉 봉동읍 은하마을 250,000 (1월 21일자)



전주시는 지난 18일 전주한옥마을 '공간 봄'에서 2019년도 이동형 갤러리 '꽃심'에 참여하게 된 지역작가 16명과 간담회를 가져 운영방법과 전시일정 등을 논의했다.

## 지붕 없는 미술관

### 이동형 갤러리 '꽃심' 곳곳으로

시, 29일부터 2주씩 작품 전시키로

지붕 없는 미술관 이동형 갤러리 '꽃심'이 올해도 전주 곳곳을 찾아가고 있다.

전주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각 예술 작가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과 여행객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동형 갤러리 '꽃심'을 오는 29일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공개모집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참여할 16명의 지역 작가를 모집한 상태로, 선발된 작가들은 오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작가별로 2주 동안 갤러리를 운영한다.

시는 작품이송과 설치를 지원하고 운영수당 지원 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에는 참여작가 합동전시회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들은 전주한옥마을 '공간 봄'에서 2019년도 이동형 갤러리 '꽃심'에 참여하게 된 지역작

가 16명과 간담회를 가져 운영방법과 전시일정 등을 논의했다.

전시에 참여하게 된 한 작가는 "올해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고, 전주 시민들에게 좋은 작품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에게는 예술 관련 문의를 낮추고 작가들에게는 역할을 기르고 전시 기회도 제공하는 정책을 만들어 준 전주시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새만금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동형 갤러리 꽃심이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켜 문화특별시 전주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품 활동에 매진하는 작가들에게는 창의적·실험적 발표기회를 제공함을 실어주고 이를 통해 전주의 문화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저소득층 250여 가구 노후주택 개보수

전주시가 올해 두 배 늘어난 예산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250여 가구의 노후주택을 수리해준다.

시는 '2019년도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을 오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주소지 등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는 사업대상 소득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서 60%이하로 확대됐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주택의 지붕개량과 부엌, 화장실, 창고공사, 도배장관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과 독거노인 및 장애인가구의 편의시설(문턱낮추기, 경사로설치, 보조손잡이 설치) 등이다.

시는 올해 지붕·천장 붕괴와 벽지·

장판 공업이 발생 등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누수 개·보수 분야를 강화함으로써 추가붕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후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주소지 등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주거복지과(063-281-5247)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제춘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가구가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현황 조사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수혜자의 만족도가 큰 사업인 만큼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 검찰, 박병대도 재청구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차장)은 지난 18일 오후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전날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을 마친 지 하루 만에 전격 청구한 것이다.

한때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은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의 영장심사에 서게 됐다. 그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번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지난해 12월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2일 만이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혐의가 중대하고 영장 기각 후 추가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소송 관련 재판개입 등 새로운 범죄혐의가 드러난 점 등을 감안해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영장이 함께 기각됐던 고영환(64·11기) 전 대법관은 제외했다.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재판 개입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박 전 대법관에 비해 관련 정도나 기간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세상에 빛(안정적 전력공급)을  
이웃에 사랑(사회공헌활동)을  
전합니다.**

**한국전력**

**한국전력 부인지사  
지사장 김 현**